

올 전북 대표 돌음기업 20곳 선정

고백기술·국민바이오·그린로드·디케이에코팜·리텍·엘템 등 경진원, 오리엔테이션·사업설명회 진행... 3년간 기술개발 등 지원

전라북도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2022년 전라북도 돌음기업 육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규 돌음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돌음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1단계: 돌음기업, 2단계: 도약기업, 3단계: 선도기업, 4단계: 지역스타기업, 5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중 첫 번째 지원사업이다.

도내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매년 20개사)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공정 개선, 마케팅 등 성장 초기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기업육성정책이다.

이번 돌음기업 신규 선정은 지난 3월 7일부터 모집을 진행해 총 4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인터뷰평가-운영위원회 최종심사)의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돌음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는 △고백기술(대표 고경철) △국민바이오(대표 성문희) △그린로드(대표 김지용) △값은순수행복한식품(대표 정문주) △디케이에코팜(대표 홍의기) △리텍(대표 이기범) △모스터일렉(대표 김보민) △비이(대표 박기선) △비엔지(대표 김영주) △승원(대표 고승호) △시그라벨(대표 장창우) △에스첨단소재(대표 허석봉) △엘템(대표 김진기) △오가벨(대표 윤지희) △이은(대표 김영범) △필요(대표 김경범)

△지타엠(대표 김경석) △파차엔글로벌(대표 임동욱) △하이하우징(대표 민형선) △휴먼피코스텍(대표 김양수) 등이다.

2020년부터 돌음기업으로 지정된 40개사의 지원 성과로는 경진원의 지원 사업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액 31.8%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도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하는 등 매출 성장, 고용 창출, 수출 및 후속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1년 돌음기업 수출 성과는 약 307만,200달러, 총 10개국에 수출을 하여 전년도 대비 4개국 늘어나 수출 판로 다각화와 매출증대의 결과를 냈다.

특히 구강관련 의약품품을 생산하는

DS는 2020년에 돌음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매출성장을 보였고 2022년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경진원은 오는 24일 신규 지정된 20개의 돌음기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설명회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돌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으로 기술 해결,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R&D기획 컨설팅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내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가 직접 재배 쌈채소로 구성

동김제농협 한돈 꾸러미, 라이브커머스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은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쌈채소로 구성된 한돈 꾸러미를 2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은 도드람 한돈 삼겹살800g과 목살 800g 꾸러미에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쌈채소 무료 증정으로 판매가 대비 37%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으로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김제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도농 상생 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소포장 상품과 밀키트 등을 판매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소포장과 밀키트 등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신역세권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LH, 내달 18~20일 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 매각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군산신역세권의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상업시설용지 15필지(638~1,218㎡)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430~538㎡)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상업시설용지가 7억8,700~19억8,0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억8,100~7억8,100만원으로 ㎡당 단가는 각각 123만 원, 103만 원 수준이다. 대금납부는 상업시설용지가 3년 균등분할 납부(무이자),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년 균등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동군산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군산신역세권지구는 108만㎡ 규모에 공동주택과 공원, 상업, 교육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다. 반경 3km내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종합병원, 시청 등이 위치한 도심 배후시설도 양호하다.

간편도를 통한 원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 29호선 등으로 도·내외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진출입이

유리한 교통의 요충지다.

이번 공급되는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는 주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필지 규모가 다양해 투자자 활용계획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금강과 서해바다가 교차하는 천혜의 자연을 끼고 있는 군산신역세권은 디오시티와 함께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됨에 따라 교통 편의성과 풍부한 배후수요가 갖춰진 군산신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입찰은 오는 7월 18일~20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해진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063-230-6104, 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고창 책마을 해리’ 훌쩍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 여행지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부엉이 외형 ‘책부엉이 도서관’ 등 인상적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멈춰있던 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여행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국내 여행 활성화와 농촌체험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상품을 20일 소개했다.

이번 여행상품은 소모임 단위 여행객이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에서 1박 2일 동안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됐다. 각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다. 특히 농촌 문화, 자연경관, 지역 먹거리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 여행에 관심이 높은 40~60대 여성 취향에 맞춰진 점이 눈길을 끈다.

여행지 8곳은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 △강원 횡성 횡성예다원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전남 고흥 회순하브르락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경남 안동

‘토라(土樂)토다’ △경남 고성 몽이랑 농원 △제주 서귀포 풀개협동조합 등이다.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은 4만 여권의 책으로 꾸며진 실내장식과 야외 조형물이 여행객을 맞는다. 횡성 예다원은 해발 300미터에 자리 잡고 있어 사색과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출판공간, 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곳이다. 읽고 쓰고 떠나는 인생 책 농사를 주제로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가득한 ‘버들논도서관’,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부엉이 외형을 한 ‘책부엉이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인상적이다. 지역 명소인 선운사 고창읍성, 상하농원 등과 연계하면 1박 2일 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전남 회순 ‘회순하브르락’ 농장은 1만 3,000제곱미터(4,000평)에 달하는 정원에 꽃과 허브가 가득한 곳으로 안전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다.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농장은 500미터 고지의 호젓한 산골에 있다. 산세가 수려해 야영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다.

경북 안동 ‘토라(土樂)토다’ 농장은 ‘카페형 치유농장’을 지향하는 곳으로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며 나만의 접시를 만들 수 있다. 농장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낙동강 산책길, 마애미술공원이 있다. 경남 고성 ‘몽이랑농원’은 1,000개가 넘는 향이리가 길게 늘어진 풍경에 먼저 놀라게 되는 곳이다. 공으로 만든 다양한 전통 장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추장 만들

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 ‘풀개 협동조합’은 제주 귀농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의 제주살이 이야기를 도움달 삼아 농장에서 머무는 동안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각 여행상품 예약은 여행플랫폼 ‘노년법(nonunbut.com)’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할 수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상품 가격의 약 50퍼센트를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혈액질환 암 환우 위해 헌혈증서 기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7일 혈액질환 및 암 환우를 위해 헌혈증서 250매를 (사)한국혈액연합회에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헌혈증서는 공단 임직원의 따뜻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한 단체 헌혈 및 자발적인 증서 기증으로 마련됐으며, (사)한국혈액연합회를 통해 잦은 수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과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증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000회 이상의 헌혈에 참여했으며, 1,434명의 헌혈증서를 (사)한국혈액연합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등에 기증하며 국가적 혈액 공급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

/김윤상 기자

‘JB뱅크서 직접 보험 가입 가능’

전북은행, 모바일 뱅카슈랑스 서비스 선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20일부터 스마트폰 뱅킹 앱 ‘JB뱅크’에서 직접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뱅카슈랑스 서비스’를 선보인다.

‘모바일 뱅카슈랑스 서비스’는 은행 방문 없이, 24시간 저축보험은 물론 암, 치아, 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전북은행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App)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전북은행은 8월 말까지 신규가

입자를 대상으로 ‘방가 방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JB뱅크에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보험 가입 후 11월까지 정상 납입하는 고객 300명에게 고객별 최초 1회, 2만원 한도로 첫 달 보험료를 캐시백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모바일을 통해 보다 간편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뱅카슈랑스 채널을 확대하고 보험사



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벤트 및 대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JB뱅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라이브리, 오픈 1주년 감사이벤트

내달 8일까지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경제지주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브리(www.nhyvly.com)에서 오픈 1주년 기념 감사이벤트를 오는 7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구매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2%의 적립금이 지급되며, 또한 인기 있는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주차별 할인

전이 진행된다. 해당 상품들은 주차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기간 동안 계속해서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푸진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기간 중 4만원 이상(실 결제금액 기준)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7월 15일 라이브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품으로 1등 1명에게 김치냉장고를 2등 3명과 3등 10명에게는 각각

큐커와 전기그릴을, 4등 50명에게는 쌀 10kg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라이브리를 꾸준히 이용한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6개 부문(구매왕, 선물왕, 홍보왕 등)에 해당하는 우수고객을 선정해 한우 선물세트 및 적립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지역명품관에서는 한우, 한돈 등 지역 명품 축산물 할인행사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기간 중 라이브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공간정보 디지털 인재양성 ‘최우수’

LX한국토정보공사(LX공사·시장 김정렬) 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공간정보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았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공간정보 산업분야의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왔으며 2018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00% 취업률을 달성하는 한편, 협약기업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제작자 향상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직원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디지털 교육과정의 개발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 향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 중 2년 연속 성과평가 상위 20%이내의 모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 사업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자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속기관 안전보건분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담당부 총실 이행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 도급·용역·위탁 등의

안전보건 관리,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휴식기에 대비해 산림사업장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은 폭염에 의한 건강관리 요령, 산업재해 시 주의사항,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요령 등이다.

/남원=김기두기자